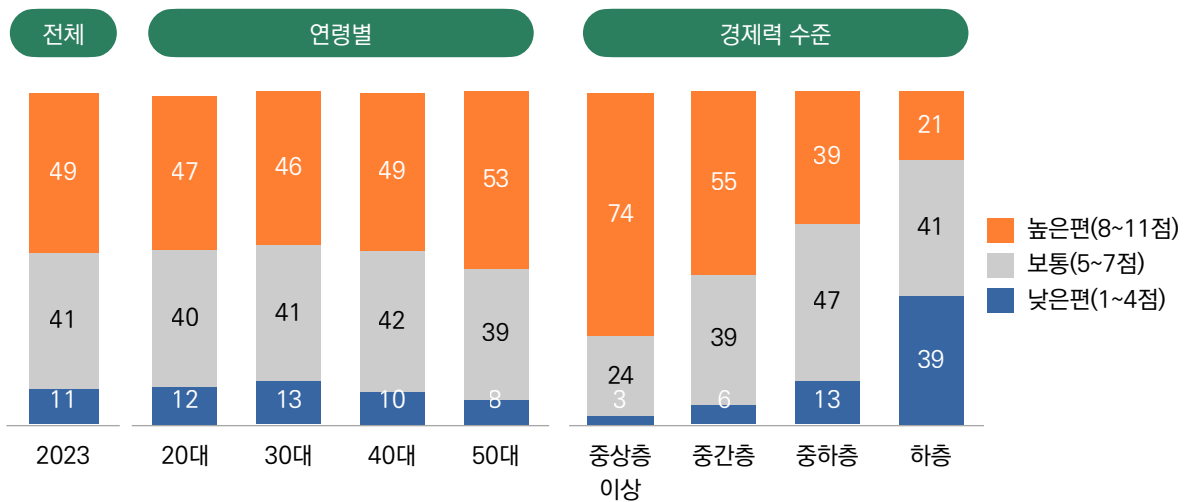




## 우리 국민, 경제력이 높을수록 자존감 높아!

- ▶ '자존감(自尊心)'은 자신 스스로에 대해 가치를 갖춘 존재로 여기고 부정적으로 여기지 않는 감정을 의미한다. 자기 자신을 그 자체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감정인 '자존감'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에 대해 살펴본다.
- ▶ 최근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조사 결과, 현재 자존감 수준을 스스로 평가토록 한 결과, 우리 국민의 절반 정도는 자존감 수준이 높은 편이라고 응답했다. 자존감 수준은 자기가 인식하는 경제력 수준과 상관성을 보였다. 즉 자신의 경제력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자존감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.

[그림] 현 자존감 수준 평가\*\* (일반국민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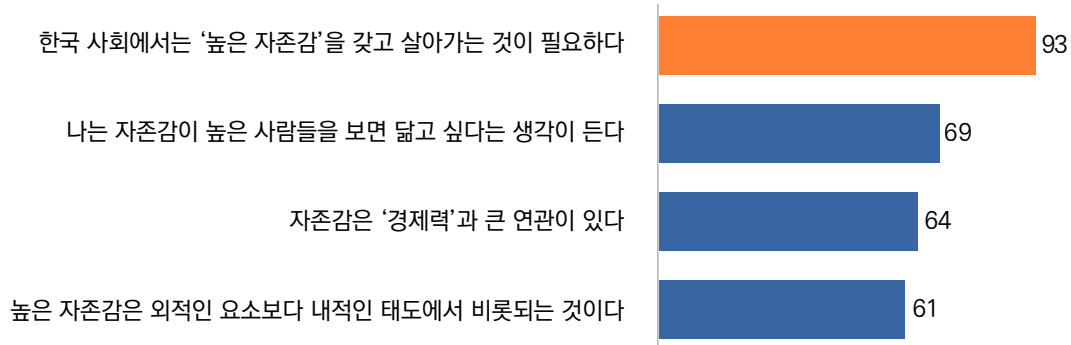


\*자료 출처 :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, '자존감 관련 인식 조사', 2023.08.30. (전국 만 19~59세 남녀 1,000명, 온라인조사, 2023.06.13.~06.16.)  
 \*\* 11점 척도임

### ◎ 우리 국민 대다수, 한국 사회에서 '높은 자존감'이 필요하다!

- ▶ 실제 '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'을 확인하고자 몇 가지 진술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동의율을 묻은 결과, '한국 사회에서는 높은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'고 생각하는 비율이 93%로 대다수였다.
- ▶ 또한 '자존감은 경제력과 큰 연관이 있다'와 '높은 자존감은 외적인 요소보다 내적인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이다' 모두 60%대의 동의율을 보였다. '경제력'이라는 외적 요소와 '내적인 태도'는 상반된 개념이지만 두 결과 모두 비슷하게 응답됐는데, '경제력', '내적인 태도' 모두 자존감과 연관이 있다는 결론이다.

[그림] 자존감 관련 인식 (일반국민, 동의율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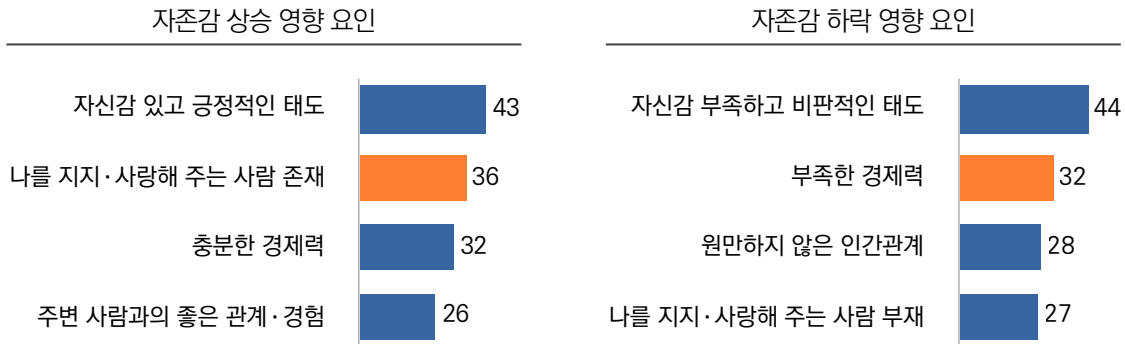


\*자료 출처 :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, '자존감 관련 인식 조사', 2023.08.30. (전국 만 19~59세 남녀 1,000명, 온라인조사, 2023.06.13.~06.16.)

## ◎ 나를 지지·사랑해 주는 사람의 존재, 자존감 상승에 영향 미쳐 36%

- ▶ 자존감 상승과 하락에 영향을 주는 요인 각각을 물은 결과, 자존감 상승 영향 요인으로는 '자신감 있고 긍정적인 태도'(43%), 자존감 하락 영향 요인은 '자신감이 부족하고 비판적인 태도'(44%)가 각각 1위로 꼽혔다.
- ▶ 그 외 상승 요인으로 '나를 지지·사랑해 주는 사람 존재'와 '충분한 경제력'이 뒤를 이었고, 하락 요인은 '부족한 경제력'이 32%로 2위를 차지했다. 자존감 영향 요인은 태도적 측면뿐만 아니라 관계적, 경제적 측면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데이터이다.

[그림] 자존감에 영향 미치는 요소 (일반국민, 중복응답, 상위 4위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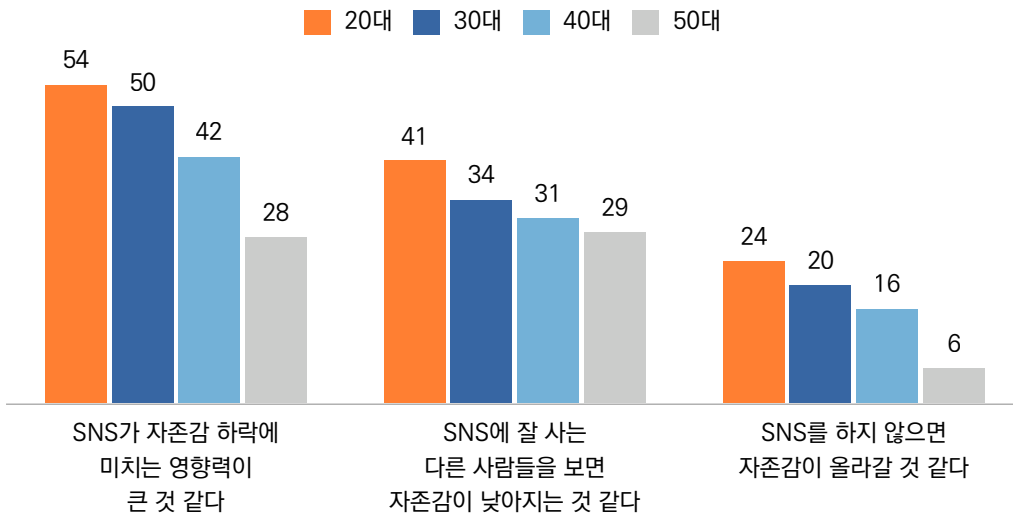


\*자료 출처 :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, '자존감 관련 인식 조사', 2023.08.30. (전국 만 19~59세 남녀 1,000명, 온라인조사, 2023.06.13.~06.16.)

## ◎ SNS로 인한 자존감 하락, 연령이 낮을수록 높아

- ▶ SNS가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몇 가지 진술문을 제시하고, 이에 대한 각각의 동의율을 물어 연령별로 살펴보았다. 그 결과, 연령대가 낮을수록 SNS가 자존감 하락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. 20대의 경우 'SNS가 자존감 하락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 같다'에 절반 이상(54%)이 그렇다고 응답했고, 'SNS에 잘 사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 같다'에는 41%가 동의해 SNS상 타인과의 비교가 자존감 하락 요인으로 이어짐을 보여주었다.

[그림] SNS가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력 인식 (일반국민, 동의율, %)



\*자료 출처 :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, '자존감 관련 인식 조사', 2023.08.30. (전국 만 19~59세 남녀 1,000명, 온라인조사, 2023.06.13.~06.16.)